

유일한 기독교 2: 하나님의 은혜

성경말씀: 마7:15-29

도입

유일한 기독교 1: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 큰 길과 좁은 길

두 길: 믿음의 시작(13-14), 두 나무: 믿음의 열매(15-20), 두 집: 믿음의 최종 결과(21-28)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의 예

15-21절: 거짓 대언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대개 언변이 좋다, 달란트가 좋다. 인물이 좋다. 카리스마 그런데 속은 양 떼를 잡아먹는 늑대이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행20:28-30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 대신 전해 주는 사람, 가장 귀중하고 보람 있는 직무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의 진실한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다.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

그러나 진짜에는 꼭 가짜가 끼게 마련이다. 루이뷔통, 구찌 등의 명품은 짝퉁이 많다.

진리를 전해야 할 대언자들 중에도 짝퉁이 많다.

대언자 예레미야: 바빌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인 상태, 거짓 대언자들로 인해 나라 멸망 렘5:25-31; 대언자들, 제사장들의 부패로 인해 백성이 부패된다. 목사가 잘 해야 나라가 산다.

현 시대의 우리나라 모습:

사상 전쟁, 하나님을 버림. 맘몬 제일주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짐

누구의 책임인가? 1차적으로 목사와 교회의 책임이다. 세상에서,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함.

렘6:10-17: 참 대언자들의 옛 길로 들어서야 한다. 그것은 곧 좁은 길이다. ★★★

이들을 가려내는 방법: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생명의 법칙(창1), 사과나무, 배나무 다른 것은 속여도 열매는 속이지 못한다.

이들의 열매: 영혼의 자유, 우리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 과도한 헌금 강요. 과도한 율법주의, 과도한 봉사, 과도한 세습

당신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삶의 변화가 있는가?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의 심판

21-23, 기억하라. 심판하는 날이 있다(22절). 7장의 주제는 심판 혹은 판단이다.

이들의 특징

1. 교리가 바르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 주(큐리오스), 구약 시대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주(큐리오스)로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이들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한다. 최소한 말로는 인정한다.

즉 교리가 바른 사람들이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침례 성도,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 목사, 집사일 수도 있다. ★★★

2. 열정의 감정이 있다: 주여, 주여!

셈족의 언어에서는 같은 것을 반복함으로써 뜨거운 감정이 표현된다. 행9:4 사울아, 사울아,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삼하18:33).

진실로 진실로(요3:3)

막9:44, 46, 48

주여 삼창, 집회에서 울면서 통곡하고 밤새 방언하고 나뒹군다.

개 소리, 사자 소리, 늑대 소리, 웃음, 기차놀이, 성령 바텐더, 열정은 한국사람 못 따라간다.

3. 봉사가 많다: 사역이 많다. 대언한다(지금의 목사). 마귀를 내쫓는다(성령 운동).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금이빨, 금가루 등등). 살후2:9-10, 말세의 특징 일주일 내내 교회에 가서 산다.

23절: 주님의 판단

내가 결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알았다가 잊은 것이 아니라 결코 안 적이 없다. ★★★
무서운 말이다. 알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다. 자기 좋은 대로 ★★★
롬10:1-4, 사1:11-14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요8:47).

중요한 점: 위의 세 가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

구원 받기 전의 사도 바울(빌3:4-6)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육신하셨다.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에게 값없이 행위 없이 거저 베풀어주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자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말: 주님,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여 결국 자신의 욕망과 명예와 재물과 존귀를 얻으려는 사람들
사람 앞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렘17:9-10

우리의 속사람이 바르게 서야 한다.

우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고전15:10

24-27: 두 사람이 집을 짓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다. 좋은 집이다.

그런데 하나는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모래 위에 지어진다.

심판 날에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남는다. ★★★

은혜: 170회(창6:8, 계1:4)

기독교의 유일성: 내 행위와 전혀 상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롬11:6).

28-29: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결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

일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가정, 교회, 사회의 변화 ★★★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요6:28-29).

성화의 길로 매진하는가?

우리는 매일 매일 다른 사람이다. 이 차이가 10, 20년 모이면 성화된 사람을 만든다.

구원받았어도 그 뒤에 바른 행위가 없으면 겨울 불로 구원받은 사람과 같다.

엡2:8-10

고전3:10-17